

# 김영록 지사 “고흥, 우주항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

## 도민과의 대화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하는데 앞장 설 것”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는 19일 고흥군을 방문, 도민과의 대화에서 “고흥군을 우주개발의 꿈을 실현할 나로우주센터와 함께 우주항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고흥군청 우주출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첨단 우주항공기술의 집약체인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21일 역사적인 발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나로우주센터 중심지로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고흥을 하늘에서부터 땅

까지 첨단산업 1번지로 육성하겠다”며 “드론·항공산업을 육성하고 아시아의 푸드밸리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흥 거금·완도 고금 구간이 국도로 승격하고 고흥 영남·팔영 등 고흥의 SOC사업이 국도·국지도계획에 반영되면서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됐다”며 “고흥에서 광주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이번에 반영은 되지 않았다. 앞으로 4차선으로 추진할지 아니면 고속도로로 추진할지 도민들의 뜻을 잘 살피고 고흥의 SOC를 획기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고흥이 남해안관광벨트의 중심축이 되도록 체류형 숙박시설 유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지사는 “관광객이 최소 2박3일 전남에서 묵는 체류형 관광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들이 여수와 진도만 거쳐 가는 것보다 고흥에도 하루를 묵을 수 있도록 관광단지가 필요하다”며 “전남도에서도 고흥군에 관광숙박시설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흥군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위한 도비 지원을 요청했고 김 지사는 “도비 5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도민과의 대화에서 김종일 도양을 변영회장은 ‘도양읍해양쓰레기 아저장 부지 확장’을, 김종을 흥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스마트팜혁신밸리 실증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 1년 이상 행정절차가 소요되는데 고흥군에서 절차를 진행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스마트팜도 공익적 기능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수익성을 내는 구조를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증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 운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일 도양전북양식어법인 대표의 ‘고수온 피해 재해복구 비용 단가 현실화’, 김선수 도양읍주민자치위원장의 ‘77호선 방음벽 교체’, 공창기 풍양면변영회장의 ‘유자 한과 피해 단계별 보상기준 마련’ 등에 대해 김 지사는 “방음벽 교체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재해 보상 기준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민과의 대화엔 송기근 고흥군수와 송영현 고흥군의회 의장, 박진권·박선준 도의원 등 21명이 현장 참석했다. 군민 150명은 온라인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이용섭 시장 “5·18 원흉 전두환 찬양, 尹 사죄해야”

### 이용섭 시장 “5·18 원흉 전두환 찬양,尹 사죄해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 원흉’으로 지탄받는 전두환을 찬양하는 발언을 쏟아낸 것과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이 긴급 성명을 내고 윤 전 총장의 사죄를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20일 성명을 통해 “저열하고 천박한 역사관을 드러냈다. 전두환 찬양에 호남까지 운운하며 민주시민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 “최없는 국민들을 무참히 살인

한 것을 빼고 일을 잘했다니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치권력 앞에 국민의 생명과 존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권 주자라는 사실 자체가 통탄하고 분노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홧발에 짓밟히고 무자비한 총칼에 목숨을 잃어야 했던 무고한 광주시민들,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고 평생 피울을 삼키며 밤잠 이루지 못하는 오월가족들, 아직도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은 수많은 행방불명자의 가족들 고통을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나”고 되물었다.

이 시장은 “150만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며 “윤 전 총장은 헌법을 유린하고 하극상의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5·18 원흉전두환을 더 이상 비호하지 말고, 발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역사 왜곡과 발언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기동취재본부

## 광주상의 ‘지역발전 우수 제안’ 대선·지선 공약으로 제안한다

### ‘광주·전남 발전 프로젝트 공모’ 우수 아이디어 10건 선정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발전 프로젝트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공약과제로 채택해 각 정당에 제안할 계획이다.

광주상의는 8월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1주간 진행된 ‘광주·전남 발전 프로젝트 공모전’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우수 제안 10개가 각 부문별 아이디어로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총 10명의 내·외부 전문위원들은 목적적합성, 참신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내용충실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최우수상 1인(팀), 우수상 3인(팀), 입상 6인(팀)을 각각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영산강 따라 캠핑족을 위한 복합 엑스포 공원 조성(장진태)’이 차지했다. 이 프로젝트는 영산강 유역에 캠핑을 주제로 한 전시·체험·쇼핑·놀이가 융합된 대규모 엑스포 공원 조성을 담은 아이디어다. 목적적합성, 아이디어 참신성, 지역 파급효과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우수상은 ‘첨단관광 메타버스 테마파크 조성 프로젝트(박자매 팀)’와 ‘오월전망대 건립과 사직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김형주)’, ‘대형 복합유통시설 유치(임동률)’가 각각 선정됐다. 선

정된 프로젝트는 목적적합성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구도심 재생과 관광자원화, 지역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장려상은 ‘도심 내 유희 산업문화시설 개발계획 제안(안정훈)’, ‘한국 명주 사업화와 생산단지화 전략(한진해 팀)’, ‘블록체인 기반 지역 소비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조인코인 팀)’, ‘광주 상품으로 하루 살기(신덕희)’, ‘폐야구장 자원을 활용한 수송용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RH+ 팀)’, ‘호남권 최대 광주 슈퍼랜드 테마파크 조성(김민찬)’ 등 6건이 차지했다. 이번 프로젝트 공모전은 광주상의가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 경제와 급변하는 경영환경, 산업구조에 대응하고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추진했다.

11주간 분야별로 진행된 공모전 접수 결과 지역발전·인프라 7건, 경제·산업육성 11건, 관광·문화·예술 8건, 농어촌활성화 5건, 환경 3건 등 총 40건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광주상의는 향후 공모전 시상식 개최를 통해 최우수상 1명(팀)에 1000만원, 우수상 3명(팀)에 각각 300만원, 입상 6명(팀)에게도 각각 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슬비기자

## 전남도, 코로나 일상회복 대비 5대 관광전략 추진

전남도는 11월 중 단계적 일상회복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 6000만 시대 회복과 외래관광객 유치 50만 달성을 위해 5대 추진전략 15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사·군, 전남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 전남관광협회, 광주전남연구원 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와 관광업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남관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5대 추진전략은 ▲청정 전남 안심관광 ▲체류형 관광생태계 구축 ▲효과적 홍보마케팅 ▲협업하는 거버넌스 ▲지속적인 외국인관광객 유치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이용섭 광주시장, 금형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갖고 지역 금형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한국인본진흥재단  
Korea First Foundation

##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남께서 재탄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9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